



제1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으뜸상을 받은 김희주 어린이가 작품을 들고 있다.

문광부장관상 김희주 양 부처님 그림 그리기대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월간 불광이 개최한 '제1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이천남 초등학교 2학년 김희주 어린이가 으뜸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5월 5일 경기도 여주 목야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린 대회는 '부처님이 좋아요!'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크레파스와 부른(유치원·초등 1.2학년) 수채화 부문(초등 3.4학년) 판화 부문(초등 5.6학년)으로 나눠 치러졌다.

대회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상상을 이천초등학교 6학년 엄지희 어린이가, 조계종 포교위원장상을 창용초등학교 5학년 이지우 어린이 등 총 22명이 수상했다.

김은경 기자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이전 14일 개관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웅진 시기 백제문화유산을 조망해온 국립공주박물관이 공주시 웅진동 무령왕릉 뒤편에 신축, 5월 14일 개관한다.

새 박물관은 대지면적 2만여 평, 연면적 3천 5백여 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했다. 옛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5배 커진 규모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금당보살상 도난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던 국립공주박물관은 새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안시설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새 박물관에서는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우리문화에 피어난 연꽃'전을 14일부터 개최한다.

오유진 기자

새싹포교 활동영역 넓힌다

대불어, 내달 법인으로 출범... "전국을 무대로"

어린이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의 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가 6월 12, 13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사단법인 발족식을 갖고, 전국의 어린이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불어는 1998년 포교원 산하로 들어가던 전 모체인 (사)불교포교를 독자사업 변경형식으로 등록, 이미 사단법인 절차를 마친 상태. 또한 공식명칭과 사단법인 운영관련 정

관 등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경 이사 회를 소집해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대불어는 현재 포교원 산하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대외 사업 및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받았다. 즉, 정부 지원의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 공모와 정부운영 어린이·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이 불가능했으며, 각종 행사 주체자로서 공식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이번 사단법인 등록으로 대불어는 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

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주최의 어린이·청소년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비함으로써 각종 관련사업을 주도·운영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참가어린이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활동인증서 발급과 정부 명의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게 돼, 어린이불자들의 행사 참여도들

높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어 이수완 사무국장은 "파라미터청소년협회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교계의 청소년관련 기관 등은 이미 법인으로 등록돼 종합학교나 사학단위의 청소년불자들이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와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일반 청소년들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고 있다"며 "법인화를 계기로 교계, 특히 부산지역에 한정돼 있던 어린이포교 대상이 전국 어린이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로카미트라 법사 6월 방한 인도불교지원사업단 초청



로카미트라 법사.

인도 불가촉천민을 돕기 위한 빈곤퇴치 운동인 '담마 운동'을 펼치고 있는 로카미트라 법사가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로카미트라 법사가 우리는선유, 참여불교재가연대, 현대불교신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불교지원사업단' 초청으로 방문하며, 방문 기간 동안 인도불교 후원단과의 만남, 강연회를 통해 TBMSG(범세계불교교단 우의회, the Trailokya B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 활동 소개 등을 할 예정"이라고 5월 6일

밝혔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영국 출신으로, 1979년 스승인 상가락시타에 의해 조직된 TBMSG를 이끌고 있다. TBMSG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 없이 포용하는 근대적 불교 교단인 '범세계불교교단(TBM)' △종교 조직 협의체인 TBMSG △'바후잔 히타이(Bahujan Hitay, 만인의 이익을 위해)'라고 불리는 사회활동 분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한 포교와 사회복지 사업에만 집중하며 그 수혜자를 불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한편 인도불교지원사업단은 지난해 말 인도 나그푸르 여성수행센터 건립지원 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TBMSG 산하 잠부드비파 기금(Jambuvipra Trust)을 통해 구자라트 지역 여학생 기숙학교 건립 프로젝트에 1만 달러를 지원했다. TBMSG는 현재 구자라트 지역에 남아 기숙학교를 건립 중에 있지만 2000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라크전의 여파로 건축자재비가 폭등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고 한다.

남동우 기자

뉴질랜드 환희정사 종교허가 받아

뉴질랜드의 한국 사찰이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종교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법적 권한 확보를 의미하는 '종교 허가'를 받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 위치한 '환희정사'는 최근 와이타케리시(Waitakere city) 의회로부터 모든 종교활동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치를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뉴질랜드 내 불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모든 종교단체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허가'를 받은 것은 환희정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환희정사는 법적 권리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5월 23일 오전 11시 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봉축대법회에는 뉴질랜드 수석 장관인 경제부장관과 와이타케리시시장, 국회의원 등 현지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뉴질랜드는 영국국교회, 장로교, 가톨릭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스리랑카, 티베트, 태국, 캄보디아 불교가 진출해 있으며, 중국과 일본불교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국 사찰은 오클랜드에 2곳, 남섬에 1곳 등 모두 3곳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외국 종교 단체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나 '종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활동에 필요한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근 주민이 법회 등 종교 집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즉시 집회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교회를 벗어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2000년

8월에 개원한 환희정사도 인근 개신교인 주민들의 법회 방해와 각종 민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법적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환희정사는 앞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환희정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6천여 평의 대지가 '종교 지구'로 설정됨에 따라 사실상 '불교 지구'가 조성됐다. 게다가 공식적인 육의 포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또한 현지인의 출생신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장례식도 치를 수 있어 현지인 포교에도 큰 이점을 갖게 됐다. 뉴질랜드 정부 및 시와 맞서 법적지위 확보에 매달려왔던 환희정사 회주 무허 스님은 "이제 모든 법적 권한을 취득한 만큼 현지인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원주 구룡사 대웅전 상량

지난해 9월 화재로 전소된 강원도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 대웅전 복원 상량식이 5월 3일 구룡사에서 열렸다. 이날 상량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기열 원주시장, 조영수 행정부지사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원작업에 들어갔던 구룡사 대웅전은 다포양식 겹처마 팔작지붕 형태로 28.6평 규모의 한식목조건물로 지어지며,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웅전 복원은 지난 2002년

에 실시됐던 도 문화재 실측조사 당시 작성됐던 보고서에 토대로 전통 불교양식에 맞게 복원된다. 실측 보고서에는 건축양식은 물론 구조와 재료의 크기 및 색상, 단청 모양, 집기류 배치 등을 포함한 세밀한 도면이 마련돼 있어 원형복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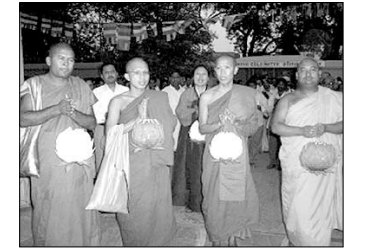
행복 나눔장터 열린다 30일 대구교대운동장

5월 30일 정오부터 대구교육대학 운동장에서 불교사회복지회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이 개최하는 '행복

나눔장터'가 열린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나눔장터'는 교환 가능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다시 쓰는 아바바 공간이며,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사회적 복지사업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세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2·3장터, 어린이들의 경제체험을 위한 어린이장터,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노인장터 등 주제별로 나눠진 장터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053)471-8090 대구=배지선 기자

전통의식작법구감 출간 법천 스님 15일 출판기념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 법천 스님(광주 선양사 주지)은 불교의식인 영산작법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전통의식작법구감>을 출간, 5월 15일 오전 11시 광주 그랑프리호텔 7층에서 출판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번엔 출간된 <전통의식작법구감>은 책을 읽으면서 영산작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광주=이준영 기자



인도 부처님오신날 5월 4일,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강당은 학생과 마을주민 1400여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사진)이 열린 것이다. "나모 사키야모 부다나무 서가 모니불!"

인도 JTS 봉축 법요식 봉행 보시금 전액 北 용천역 참사 돕기로

인도 부처님오신날 5월 4일,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강당은 학생과 마을주민 1400여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사진)이 열린 것이다. "나모 사키야모 부다나무 서가 모니불!"

팬츠실(5계)을 암송하고 잠시 명상에 든 참석자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법륜 스님(JTS 이사장)을 대신해 이화승 인도JTS 사무국장의 목소리로 들었다. 법요식 후 수자타아카데미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부처출, 태권도, 사물놀이, 인도 전통춤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모아진 보시금 전액은 북한 용천역 참사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매주 토요일 법회에서 모아지는 보시금도 북한 어린이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데 쓰기로 했다. 저녁부터는 인도, 태국, 티베트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보드카야 시

제 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 생명 · 평화 · 나눔을 위하여 -

살아있는 자연과 불교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오대산에서 걷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 생명 · 평화의 기원, 나눔을 통한 자비실천의 계명을 통해 자기 수양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일 시 :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제한 3시간)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 걷는거리 : 약 10km
- 집결지 : 월정사(5월 16일 오전 10:00까지 집결)
- 접 수 : 2004년 4월 25일 ~ 5월 16일 오전 10:30 □ 접수처 : 국립공원 매표소와 월정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 후 원 : 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불교라디오 춘천방송,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MBC 원주, KBS 강릉,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2. 참가인내

- 참가자격 : 나이제한 없음(가족동반 환영)
- 참가비 : ●일반인: 10,000원 ●대학생이하 및 10인 이상 단체: 5,000원
- 입 금 : 농협 313065-55-000880 월정사
- 신청방법 : ●인터넷 - http://www.woljeongsang.org
- 우편 및 방문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연등축제단
- 전화 : (033)332-6661-6 / FAX: (033)332-6915

3. 코스 및 준비물

- 대회코스 : 월정사 → 전나무숲길(생명의 숲터) → 반야교 → 상원사 선재농장 → 오대산장(나눔의 거리) → 상원사(평화의 기원)
- 준비물 : ●복 장 :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이 좋으며, 자켓, 모자 등 필요 ●신 발 : 워킹화 또는 경등산화
- 편의식 : 빵, 초코렛, 초코파이, 칼떡, 생수, 우유, 음료, 과일 등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 기 타 : 쓰레기봉투

「천년의 설레임, 함께 가는 중국 문수성지 순례」 동참

오대산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신라 선덕왕 12년(643년)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 정골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중국 오대산과 1,400여년만에 자매결연을 통해 수행교류 등을 확대하여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을 대중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대산 월정사 문수성지 순례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중국 오대산 문수성지 일대를 순례할 예정이오니 불자들에게서는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 음

- 방문일시 : 불기 2548(2004). 6. 24 ~ 29
- 동참금액 : 91만원(개인소요 경비, 여권발급비용, 한국내 이동경비 불포함)
- 입금계좌번호 : 313065-55-000325 농협 / 예금주 : 오대산 상원사
- 준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현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및 서류미감 : 5월 31일
- 문 의 처 : 오대산 상원사 종무소 (☎ 033-332-6666)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 후 원 : 오대산 월정사 신도회, 중국 산서성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산서성 여유국 등

불기 2548(2004). 4. 3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합장